

내가 나기 이전을 내가 있는 데서 찾으라!

25면에서 계속

게 하면서 자유를 주세요. 주인공은 돌이 아닌 까닭에 어디를 가서 될 행해도 그냥 주인공에서 알아지고 주인공에서 자동적으로 다뤄 줍니다. 다 스러 준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말로 행동으로 온통 붙잡으려고 하니 붙잡아지나오, 그게?

그리고 우연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금은 금방에 모이고 닦는 닦마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입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끼리끼리 모였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고, 누구의 죄는 더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하,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걸림이 있고 무엇이 상대가 있으랴?' 하곤 그냥 다 거기다 놓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 거기다 놓고 미워도 밉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밉다고, 아주 보기 싫다고, 또 그냥 아주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하면 당신이 외려 마구니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부터 '미운 것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미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뒤집어서 돌려서 인력을 해야 그 인력 들어간 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알았지요?

물욕을 다 보아 깨닫는지

문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직업도 좀 편하고 남들이 우러러 보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남들 부모님보다 좀 더 잘 모시고 싶은 이런 속된 마음에 휘둘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닫는 입장에서는 물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 버리고 살 수 있어야만 참도(眞道)를 깨닫는 것이지요? 이런 속된 욕심에 이끌려 다니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답 내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거기에 걸려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구멍이 있으면 거기를 뚫어 가면서 넘어갈 것이고 앞산이 있으면 물은 돌아갈 것이고, 그런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면서 서도 그런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도 불교를 참되게 믿을 수 있으며 참선을 할 수 있으며 참나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 말하자면 손 하나 움직여서는 거 또는 생각 한번 하는 거, 자고 깨는 거, 먹고 일하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쁜 거 좋은 거를 떠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대로 지극하게 사는 그 자체가 공했다는 얘깁니다. 불법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감을

“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선 급한 겁니다 ”

삼십 가지를 갖다 놔는데 우린 지금 그 물감 삼십 가지를 놓고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흰 거 쓸 때도 있고 노란 거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노란색이 따로 있고 흰색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단 말입니다. 우리 생활이 이게 전부 불법이지 생활 떠나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십 가지의 물감을 쓰되, 우리 생활입니다. 삼십 가지의 물감을 쓰되 바로 내가 고정되게 하나만 쓰지 않으니 그 삼십 가지의 물감 속에 나까지 공했다는 얘깁니다. 쓰여지는 것도 공했고, 쓰는 나도 공했다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물감 자체도 진짜 물감이 어떤 건지 이름 지어서 말할 수도 없고 또 삼십 가지의 물감을 쓴 나도 어떤 거 쓸 때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공했고, 그러니 이 전체가 한데 합쳐서 모두가 공했다는 얘깁니다. 우리 생활입니다. 그게 전부.

'어떤 거를 해야만 내가 불법을 준수하고 믿고 숭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대로 참나찰나 나투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게 그대로 참선이며 행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 게 그대로 회두입니다. 공했으면서 그대로 회두고 그대로 회두면서 그대로 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안 떠나고 있는지? 도대체 부처님이 어디 고정되게 형상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러면 허공이 부처님입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계신 거고 법당에 올라가면 법당에 계신 겁니다. 여기 와 있어 계시니까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이렇게 탁 부딪힐 때는 대뇌로 해서 통신이 전체로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습도력이나 원자도력이나 통신력이나 또는 무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도리를 모르고서 그대로 생각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기 이전과 더불어 이전도 없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렇게 같이 들어서 돌아갈 수 있어야 우주와 더불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생각이 법이 돼서 그대로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도 물질과학 또는 유전자도 거기까지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이 그렇게 많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진화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거까지는 알 수 있으나, 무전자로서 그렇게 알 수 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성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의 도리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진리의 도리를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참나를 알아 가지고, 세상 도리를 알아 가지고 우주의 도리를 안다면 '전체 돌이 아니라' 이랬을 때, 우리는 우주도 발현함으로써 우리 지구도 발현할 수 있고 내 몸도 발현할 수 있고 내 가정도 발현할 수 있고 내 국가도 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물질로만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도 모두 장본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만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든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설계가 나와야 이제 몇 사람 알게 되죠. 그게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판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무에서 유무로, 유무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틀어졌습니까?

그러니 불교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합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게 불교입니다. 죽은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이나 찾고 죽으면 천당에 가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이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게 후일에 천당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내 일을 안 해 놔는데 새 달에 월급 달 게 있을까요? 에누리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오, 돈을 갖지 말랬나오? 살림을 하지 말랬나오, 고관직에 있길 말랬나오? 자기 분수를 지켜서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말아라. 그러면 빠진다.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키면서 너무 욕심 차리지 말고, 너무 욕심에 착

을 두지 말고 나라는 데 착을 두지 말고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고 그렇게 등글게 살아라. 그런데 억지로 가는 거를 붙잡아서 내가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자진 죽는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걸 분수를 지키면서 등글게 살으셔서 우리는 가는 거 잡지도 않고 오는 거 막지도 않고 스스로 등글게 지혜롭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를 삼아서 그 한마디 한 행이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생활이 되고 그렇게 생동력 있는 삶의 보람을 느낄 거다 이겁니다.

영원토록 마음의 등을 켜고 싶어

문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절에 가서 불을 밝히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은 정해서 불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내 마음의 불을 밝혀야 진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스님, 영원토록 마음의 등을 켜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등을 항상 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오늘, 오늘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등불, 이 등불로 앞장을 설 수 있고 밝혀 줄 수 있지만 이 등불이 없다면 컴컴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로 억겁을 거쳐 온 그 습을 하나도 떼지 못할 겁니다.

중 문서는 내려놓고 다니나요? 짚어지고 다니지, 작년 공씨를 심었을 때 그 콩나무로 다시 화(화한 것뿐이지). 그리고 콩나무는 공씨를 또 짚어지고, 보이지 않는 풍을 짚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 문서를 짚어지고 다니는 거지 과거의 업이 있어서 짚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나 나기 이전을 나 있는 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회두도, 자기가 나왔기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지 자기가 그대로 그릇이 빈 그 자체가 바로 회두며 자기가 거기에서 한 점의 불씨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단 데서 오는 것같이, 단 데서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 불씨가 밝혀야 그 불씨를 보고서 부처님께서도 같이 한마음이 돼

주시겠지만 암흑세계에서 그대로 들고 부처님의 불빛을 보려고 안 하는데 어찌 부처님이 자꾸 도망가는 눈을 붙잡아다가 '이 불빛을 보라, 불빛을 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고 계시지만 자식을 기르는 데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모습으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이듬해서 그 한 점의 마음에도 전화통 돌리듯이 거기다 맡겨 놓고 '아, 내 한마음이 바로 애의 한마음이니 내 한마음이 이러한테 애의 한마음도 자기 육신을 끌고 길잡이가 돼서 잘 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나와 같이, 내 맘과 같이 생각한다면 잘 갈 것을, 괜히 말로 욕하고 때리고 온통 야단을 벌이니까 집안만 혼란해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되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언제나 상을 짜꾸러야 하고, 그러니 복은 들어오지 않고 공덕도 될 수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만일 이 몸통이를 가지고 내가 했지, 내가 받았지, 내가 살지, 내가 아프지, 내가... 만일 '나, 나, 나, 나' 하니가 이놈의 잠재의식 카세트에 그냥 얹히고설켜서 감겨 가지고 각본대로 나오죠? 영화배우들처럼 도깨비장난처럼 그냥 각본대로, 나오는 대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탄을 하기를 '아휴, 내 팔자야!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건만 어찌 팔자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가.' 하고선 한탄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과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작년 공씨를 울봄에 심었더니 콩나무로 화하고 콩나무에서 콩이 열렸으니 오늘, 오늘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등불, 이 등불로 앞장을 설 수 있고 밝혀 줄 수 있지만 이 등불이 없다면 컴컴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로 억겁을 거쳐 온 그 습을 하나도 떼지 못할 겁니다.

중 문서는 내려놓고 다니나요? 짚어지고 다니지, 작년 공씨를 심었을 때 그 콩나무로 다시 화(화한 것뿐이지). 그리고 콩나무는 공씨를 또 짚어지고, 보이지 않는 풍을 짚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 문서를 짚어지고 다니는 거지 과거의 업이 있어서 짚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나 나기 이전을 나 있는 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회두도, 자기가 나왔기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지 자기가 그대로 그릇이 빈 그 자체가 바로 회두며 자기가 거기에서 한 점의 불씨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단 데서 오는 것같이, 단 데서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 불씨가 밝혀야 그 불씨를 보고서 부처님께서도 같이 한마음이 돼

관상학 最高의 秘書

면상비급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 관상학을 배우면?

- 첫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있다.
- 둘째: 자신과 고객의 차별을 이해할 수 있다.
- 셋째: 한층 더 높은 지평을 향할 수 있다.

4x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창학출판사 팩스 02)384-8644

한글한문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안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화하고 실무자 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3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일요일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권리회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목 합성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敎·齋禮儀範 案内

○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제 2장 예경편	제 3장 전각예경편
제 4장 불공편	제 5장 모든법회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법장단위식	제 8장 점안편	제 9장 이문편
제불보살 팔부위식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제 2장 장의편	제 3장 대비편
제 4장 장 四十九齋	제 5장 재공편	제 6장 기제사
제 7장 靈魄結縛篇		

불서출판 책나라 02)739-7451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한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밀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초자연적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정당 저울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책이오신날: 4:00신 김용익 3번출구 - 정음 정수장가는 버스 - 엘리베이터 3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